

# 도심 속 3m 원시적 돌탑들... 명상의 시공간을 건다

April 27, 2022 | 권영은 기자

Page 1 of 1

## 도심 속 3m 원시적 돌탑들... 명상의 시공간을 건다

스위스 현대미술가 우고 폰디노네 서울 부산 전시

키 3m의 거인이 도심 한복판에 출현했다. 하나도 아닌 다섯이 우뚝하니서 있는 이것은 스위스 현대미술가 우고 폰디노네(58)의 조각상 '수녀(nuns)와 수도승(monks)'. 거대한 돌덩이 위에 보다 작은 돌을 올린 모양새가 영락없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다. 거칠게 깎인 작품 표면은 꼭 수도승의 풍성한 옷자락 같아서 두 팔 벌려 품어 안으려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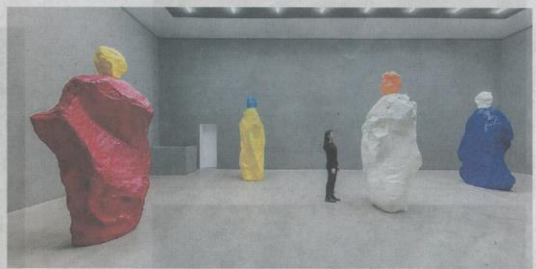


우고 폰디노네 '메타릭' 연작, 국제갤러리 제공

우고 폰디노네의 수녀와 수도승 5점은 그의 개인전 '너스 앤드 몽크스 바이 더 씨(nuns and monks by the sea)'가 열리고 있는 서울 통로구 국제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의 첫 단추를 꿰 건 2013년 미국 뉴욕 록펠러센터 광장에서 '유언 내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첫선을 보인 거대한 청색(청화색 사암) 조각이었다. 이 기념비적 전시는 2016년 라스베이거스 외곽 네바다 사막에서 돌탑 형상의 작품 '세븐 데저 마운틴스'로 다시 전시됐다. 최근 미술 애호가로 유명한 방탄소년단 RM의 방문으로 또 한 번 화제를 끌었던 그곳이다. 이렇듯 10년 넘게 우고 폰디노네는 돌에 천착해왔다. 세상 어디에서나 쉽게 구

인간 형상의 '수녀와 수도승' 10년 넘게 돌에 천착한 작가 이번엔 청동으로 다테일 보장 다른 공간에서 동시 전시 선호 부산에선 수채화 '메타릭' 선보

할 수 있으면서 시간을 축적한 재료가 는 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번 전시는 앞선 전시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돌을 활용하는 방식에선 한 발 더 나아갔다. 원형은 크기와 다짐을 충분히 표현하기 위해 돌이 아닌 청동으로 선보인 것이다. 이번 작품은 작은 석회암을 3D 스캔하고 확대한 후 청동으로 주물을 뜨고 색을 입혀 만드는 과정을 거쳐 꼬박 2년 만에 완성됐다. 그러면서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작품이 놓인 공간에도 특히 신경 썼다.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얗게 칠했던 화이트루프의 기존 전시장 바닥과 벽, 천장에 시멘트를 발라 벽과 바닥의 경계를 최대한 없앴다. 자연광이 들지 않게 유리문에는 자외선 차단 필터



우고 폰디노네의 개인전 '너스 앤드 몽크스 바이 더 씨(nuns and monks by the sea)'가 열리는 전시장 전경. 국제갤러리 제공

도 붙였다. 안제 외서 작품을 보더라도 일관되도록 한 것이다. 그의 수채화 '메타릭' 연작 17점을 선 보이는 국제갤러리 부산점 공간 역시 전면 유리창을 자외선 차단 필터로 감싸 마치 구름에 그늘이 진 듯 연출했다. 부산 수영구 복합문화공간 F1963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우고 폰디노네가 뉴욕 롱아일랜드 메타릭에 있는 집에서 본

노을을 그린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작품을 선보이는 건 그가 자주 취하는 전시 방법이다. '메타릭'은 해가 질 때 바다와 하늘, 해라는 3가지 소재를 오로지 3개의 색으로만 묘사했다. 단순한 형상만큼 직관적으로 마음을 움직여 하는 게 우고 폰디노네 작품의 특징이자 매력이다. 마음이 시끄러울 땐

전시장을 찾아 수녀와 수도승 사이를 걸어보자. 탑돌이를 하듯 천천히 돌아보면 마음의 공간을 되찾게 될 것이다. 수도승이 신과 인간을 잇는 매개 역할을 했듯 변화한 도시 공간에 놓인 자신의 원시적 돌탑이 현대인에게 명상의 시공간을 건다. 이번 전시는 5월 15일까지 이어진다. 권영은 기자